

어머니의 안전 지식과 가정 안전 실천간의 관계

김지영^{1*}, 윤진주², 김용임³

¹호남대학교 유아교육과, ²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³리라자연유치원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afety Knowledge and Home Safety Practice

Ji-Young Kim^{1*}, Jin-Ju Youn² and Yong-Lim Kim³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nam University

²Dept. of Child Welfare, Howon University

³Rira Nature Kindergarte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변인에 따라 안전지식과 가정 안전환경 실천의 차이를 조사하고, 안전지식과 안전환경 실천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I시의 어린이집에 재원한 영유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 143명이다. 연구도구는 선행연구 및 자료를 참고로 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증, F검증, Scheffe 사후 검증,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안전지식은 평균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 발달 특성, 놀잇감 안전, 위험 물질, 응급처치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 점수와 영유아 발달 특성, 위험 상황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 발달 특성, 전기·화재 안전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어머니는 대체적으로 가정의 안전환경을 위한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욕실과 현관영역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안전환경 실천의 총합 점수와 방과 주방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안전지식과 안전환경 실천간에는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안전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safety practice and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of mothe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and knowledge in safety of mothers. The subjects were 143 mothers in Iksan city. A questionnaire was made by the researcher on the basis of relevant materials. The data was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Cronbach's α ,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mothers' safety knowledge was higher than averag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ergence care, dangerous material, toy safety and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character according to mothers' ag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angerous situatio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character and sum score of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mothers' educational level. 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lectrical fire safety, young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 according to children's age. Second, mothers typically practiced home safe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athroom, entrance according to mothers' age.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room, kitchen and sum score of safety practice according to children's age. Third,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mothers' safety knowledge and home safety practice.

Key Words : Safety Knowledge, Safety Practice

*Corresponding Author : Ji-Young Kim(Honam Univ.)

Tel: +82-62-940-5531 email: kji4549@hanmail.net

Received July 3, 2013

Revised July 26, 2013

Accepted September 6, 2013

1. 서론

어느 날인가는 OO이가 들고 있던 목공놀이용 망치로 갑자기 누나의 머리를 때려서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병원에 서둘러 갔는데... (중략) 다행히도 꼬매지는 않았어요.

(OO어머니 면담 자료, 2013년 3월 14일)

아이들 목욕 시키려고 욕조에 물을 받아 놓았어요. 커 놓은 가스 불을 잠시 끄려간 사이에... 엄마!!! 하는 딸아이의 외침에 불연듯 불길한 생각이 들어 얼른 뛰어가 보니... (중략) 아들이 욕조 안에 떠 있던 오리를 잡으려다가 거꾸로 꼬부라졌다 일어났다 봐요.

(OO어머니 면담 자료, 2013년 4월 12일)

경북 대구에 거주하는 만2세 여아가 방문 틈에 손가락이 끼여 엄지손가락에 골절을 입고 입원했음.

(CISS에 접수된 2010년 1월 20일 사고 사례)

위의 내용은 가정에서 일어난 영유아 안전사고의 사례들이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려는 것은 모든 부모의 희망사항이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안전사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주의소홀이나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1]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차원에서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전략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위해정보는 2009년 11,427건, 2010년 15,006건, 2011년 20,7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 특히, 2010년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서 유아기(취학전 시기)의 사고발생 비율은 전체 사고의 8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유아기 안전사고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영유아기는 안전 취약 연령대로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유아 안전사고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CISS를 통해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위해 정보 중에서 가정 및 주거시설에서 전체 안전사고의 59.4%가 발생하였다[2]. 또한 2012년 대전·충

청지역 위해정보 분석 결과에서도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62.7%로 나타났다[3]. 이러한 경향은 외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유럽의 5개국(독일,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 안전사고 조사에 의하면, 만 4세 이하 유아의 사망률 1순위는 가정내 안전사고였으며[4], 미국의 경우 영유아 안전사고의 79%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 50% 이상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안전사고인 것으로 보고되었다[5].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높지 않으나,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벼운 상해일 경우에는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는 한 대부분 보고되지 않는다[6]. 따라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보다 더 많은 안전사고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집안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가정내 영유아의 안전사고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 가정의 환경적 요인, 부모 요인과 관련되며 이들 요인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한다[7]. 첫째, 유아 요인을 살펴보면, 유아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하다[8]. 성인에 비해 신체조절 능력과 운동기능이 미발달되어 넘어지거나 다치기 쉽고, 위험 상황에 대한 지식과 사고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시기보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 및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매우 높다[9]. 둘째,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집은 성인 편의 위주로 지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신체 발달이 미숙한 영유아에게는 위험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 유아의 신체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공간 구성, 구조물의 높이, 물건 배치, 구조적인 위험 요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셋째, 부모 관련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감독 수준, 안전 지식과 실천 등의 요인이 있다. 다른 연령대의 어머니보다 10대의 어머니에게서[10],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감독을 하는 부모의 자녀에게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11]. 또한, 안전 지식과 관계성이 밀접한 안전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낮은 어머니와 위험의 지각 정도가 낮은 어머니의 경우 가정의 환경적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과 안전 사고간에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으나[11],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상해 위험이 더 높음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12].

영유아의 안전사고는 생활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성인의 안전지도가 소홀히 이루어질 때 발생하기 쉽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2010년)에 의하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장소는 거실(32.5%), 방·침실(32.4%), 기타 가정내 공간(18.8%), 주방(7.7%), 욕실·화장실(4.7%), 현관(1.6%), 계단(1.5%), 베란다(0.8%)순으로 나타났다[2].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방심 및 부주의가 38.7%로 가장 높았고, 유아의 부주의 35.0%, 가정 내 각종 시설이나 물품의 안전 문제 19.9%, 물품 자체의 하자 문제 6.4% 순이었다[13]. 또한, 가정내 안전사고 발생시 양육자가 있었던 경우는 77.3%였으며, 양육자의 안전의식 부족이 가정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14]. 결국, 부모의 부적절한 감독과 안전지식 부족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15]. 따라서 가정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모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16], 부모 스스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재자임을 인지하고[17], 위험한 상황과 행동을 구별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18].

가정의 안전환경을 구성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한 사람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모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7,19-22]. 그러나 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7,23]에서는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과 안전실천간의 차이를 살펴보지 않았으며, 부모의 안전지식과 안전실천 간에는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가정의 안전사고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집안 장소에서 지켜야 할 안전 점검 내용 및 안전 실천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안전지식과 가정 안전환경 실천의 차이를 조사하고, 안전지식과 안전실천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어머니의 배경변인(연령, 최종학력, 자녀 성별, 연령)에 따라 안전지식은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어머니의 배경변인(연령, 최종학력, 자녀 성별, 연령)에 따라 가정 안전환경 실천은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어머니의 안전지식과 안전환경 실천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I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는 어머니 143명이다. 연구대상에 대한 일반적

인 배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

	Characteristic	Category	N(%)
Mother	Age	30-34	61(42.7)
		35-39	47(32.9)
		≥40	35(24.5)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22(15.4)
		College	73(51.0)
		University	48(33.6)
Children	Gender	Male	66(46.2)
		Female	77(53.8)
	Age	Infant	60(42.0)
		Children	83(58.0)

2.2 연구도구

2.2.1 어머니의 안전지식

어머니의 안전지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Kim[19], Kang[24], Kim등[25]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연구진이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유아교육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본 도구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질문지는 영유아 안전사고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지식(3문항), 영유아 발달 특성(3문항), 전기·화재 안전(4문항), 놀잇감 안전(5문항), 위험 물질(2문항), 위험 상황(2문항), 응급처치(4문항)에 대한 범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의 점수화 방법은 정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1점, 오답의 경우에는 0점을 주어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안전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2.2 가정의 안전환경 실천

어머니의 가정 안전환경 실천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Korea Consumer Agency[2], Kim[19], Kim[20], Kang[24], Kim등[25]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유아교육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문지는 집안 장소별 안전점검 사항[2,26]을 중심으로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 베란다의 6개 항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의 점수화 방법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화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시설 및 설비가 안전한 환경으로 정비되었음을 의미한다. 질문지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91이었다.

2.3 연구절차

질문지 문항구성의 적절성과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대상이 아닌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질문지의 문항구성 및 내용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본 조사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영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거하였다. 총 2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167부가 수거되었으나,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24부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143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통계, Cronbach's α , 독립표본 t검증, 일원변량 분석, Scheffe 사후 검증,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어머니의 안전지식

어머니의 안전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2] The general tendency of mothers' safety knowledge

Category	M(SD)
general knowledge of infant' safety accident	.80(.21)
infant'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69(.25)
electricity · fire safety	.45(.23)
toy safety	.52(.23)
dangerous material	.79(.26)
dangerous situation	.52(.28)
emergence care	.64(.24)
sum of safety knowledge	.61(.10)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안전지식 평균 점수는 .6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안전지식을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M=.80), '위험 물질'(M=.79), '영유아 발달 특성'(M=.69), '응급처치'(M=.64), '놀잇감 안전'과 '위험 상황'(각 M=.52), '전기 · 화재 안전'(M=.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안전지식은 평균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며,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전기 · 화재 안전에 대한 지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3] The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mothers' background variables

Catego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Sum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Age	30-34	.80(.22)	.66(.22) ^a	.44(.22)	.46(.25) ^a	.85(.26) ^b	.57(.30)	.69(.28) ^b	.61(.11)
	35-39	.77(.22)	.77(.29) ^b	.44(.27)	.56(.23) ^b	.78(.25) ^{ab}	.49(.28)	.60(.22) ^a	.61(.10)
	≥40	.83(.17)	.65(.21) ^a	.47(.22)	.57(.18) ^b	.71(.25) ^a	.50(.21)	.65(.20) ^{ab}	.61(.07)
F	.70	3.65 ^c	.24	3.46 ^c	3.38 ^c	1.16	3.27 ^c	.05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80(.20)	.61(.24) ^a	.40(.21)	.49(.22)	.79(.25)	.59(.25) ^b	.64(.23)	.59(.09) ^a
	College	.76(.23)	.78(.24) ^b	.48(.26)	.55(.26)	.76(.29)	.43(.31) ^a	.60(.26)	.61(.12) ^a
	University	.85(.17)	.80(.17) ^b	.51(.19)	.53(.20)	.88(.21)	.52(.24) ^{ab}	.72(.25)	.67(.06) ^b
	F	1.31	10.52 ^c	2.75	.72	1.82	5.11 ^c	1.75	4.64 ^c
Gender	Male	.78(.23)	.72(.24)	.46(.26)	.53(.23)	.81(.25)	.50(.26)	.64(.24)	.61(.08)
	Female	.81(.19)	.68(.26)	.44(.22)	.52(.23)	.78(.27)	.54(.29)	.64(.25)	.61(.11)
	t	-.94	.90	.47	.28	.57	-.89	-.10	.24
Age	Infant	.83(.19)	.64(.25)	.41(.20)	.52(.21)	.77(.27)	.48(.26)	.67(.25)	.60(.11)
	Children	.77(.22)	.74(.24)	.48(.25)	.52(.25)	.81(.26)	.56(.29)	.61(.24)	.62(.10)
	t	1.65	-2.41 ^c	-2.03 ^c	.04	-.89	-1.57	1.56	-1.04

*p<.05, **p<.01, ***p<.001

Note. ①general knowledge of infant' safety accident ②infant'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③electricity-fire safety ④toy safety ⑤dangerous material ⑥dangerous situation ⑦emergence care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F=.05, p>.05), 하위 범주 중 ‘영유아 발달 특성’(F=3.65, p<.05), ‘놀이감 안전’(F=3.46, p<.05), ‘위험 물질’(F=3.38, p<.05), ‘응급처치’(F=3.27, p<.05)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점수(F=4.64, p<.05)와 하위 범주 중 ‘영유아 발달 특성’(F=10.52, p<.001), ‘위험 상황’(F=5.11, p<.01)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t=-1.04, p>.05), 하위 범주 중 ‘영유아 발달 특성’(t=-2.41, p<.05)과 ‘전기·화재 안전’(t=-2.03, p<.05)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안전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가정의 안전환경 실천

어머니의 가정 안전환경 실천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4] The general tendency of mothers' safety practice

Category	M(SD)
bedroom	2.50(.67)
living room	2.80(.78)
kitchen	3.21(.71)
bathroom	3.43(.72)
entrance	3.20(.92)
veranda	3.05(.98)
sum of safety practice	2.99(.54)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의 안전환경 실천 점수는 2.9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안전환경 실천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욕실’(M=3.43), ‘주방’(M=3.21), ‘현관’(M=3.20), ‘베란다’(M=3.05), ‘거실’(M=2.80), ‘방’(M=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는 대체적으로 가정의 안전환경을 위한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욕실에서의 안전에 가장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가정의 안전환경 실천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가정의 안전환경 실천의 총합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F=.52, p>.05), 하위 범주 중 ‘욕실’(F=4.88, p<.01)과 ‘현관’(F=2.98, p<.05)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정의 안전환경 실천의 총합점수(t=2.14, p<.05)와 ‘방’(t=3.26, p<.001)과 ‘주방’(t=1.79, p<.05)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가정의 안전환경 실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욕실’과 ‘현관’의 안전환경 실천을 잘하고 있었고, 영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가정의 전체적인 안전환경 실천에 노력하고, 특히 ‘방’과 ‘주방’의 안전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 The safety practice according to mothers' background variables

Category		bedroom	living room	kitchen	bathroom	entrance	veranda	sum
		M(SD)	M(SD)	M(SD)	M(SD)	M(SD)	M(SD)	M(SD)
Age	30-34	2.39(.57)	2.77(.96)	3.27(.69)	3.74(.35) [§]	3.53(.71) [§]	3.23(.91)	3.07(.52)
	35-39	2.49(.75)	2.72(.84)	3.19(.70)	3.36(.86) [§]	3.11(.97) [§]	3.04(1.00)	2.95(.60)
	≥40	2.57(.66)	2.89(.61)	3.20(.74)	3.30(.70) [§]	3.09(.96) [§]	2.94(1.00)	2.98(.50)
	F	.75	.61	.13	4.88 ^{**}	2.98 [*]	.94	.52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2.40(.66)	2.55(.94)	3.49(.51)	3.45(.72)	3.11(.75)	2.84(.79)	2.97(.46)
	College	2.55(.65)	2.91(.74)	3.21(.71)	3.40(.61)	3.22(.94)	3.03(1.04)	3.02(.49)
	University	2.47(.73)	2.76(.74)	3.08(.76)	3.45(.86)	3.22(.96)	3.15(.97)	2.96(.63)
	F	.448	1.99	2.60	.07	.12	.78	.21
Gender	Male	2.49(.62)	2.93(.78)	3.13(.75)	3.37(.67)	3.29(.84)	2.90(1.03)	2.98(.55)
	Female	2.51(.72)	2.69(.76)	3.27(.67)	3.47(.75)	3.12(.98)	3.16(.92)	3.00(.52)
	t	-.22	1.83	-1.17	-.85	1.11	-1.54	-.19
Age of children	Infant	2.71(.64)	2.91(.76)	3.34(.77)	3.47(.72)	3.23(1.08)	3.10(1.07)	3.11(.57)
	Children	2.35(.66)	2.73(.78)	3.12(.66)	3.39(.71)	3.19(.79)	3.01(.92)	2.91(.49)
	t	3.26 ^{***}	1.36	1.79 [*]	.57	.23	.56	2.14 [*]

*p<.05, **p<.01, ***p<.001

3.3 어머니의 안전지식과 안전실천간의 관계

어머니의 안전지식과 안전실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6] Th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safety knowledge and safety practice

safety practice	safety knowledge
bedroom	.060
living room	.102
kitchen	.021
bathroom	.142
entrance	.132
veranda	.036
sum	090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안전지식과 안전환경 실천의 총합 점수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90, p>.05$). 또한, 안전지식과 안전환경 실천의 하위 영역별 범주간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안전 지식과 가정의 안전환경 실천간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과 가정 안전환경 실천의 차이를 조사하고, 안전지식과 안전환경 실천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안전지식을 살펴본 결과,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안전지식 중에서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위험한 물질’, ‘영유아 발달 특성’, ‘응급처치’, ‘놀잇감 안전’과 ‘위험 상황’, ‘전기·화재 안전’에 대한 지식 순으로 이해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안전지식은 ‘중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임을 밝힌 선행연구 [19,21,23]의 결과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 발달 특성’, ‘놀잇감 안전’, ‘위험 물질’, ‘응급처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안전지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 [19,27]의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안전지식의 총합점수와 ‘영유아 발

달 특성’, ‘위험 상황’의 안전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안전관련 지식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안전지식 수준이 높음을 증명한 연구 [19,20,22] 결과와 일치한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유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영유아 발달 특성’과 ‘전기·화재 안전’의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제 경험과 다양한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식의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의 안전지식이 높아짐을 밝힌 선행연구 [27] 결과와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어머니의 지식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안전지식에 차이가 없음을 밝힌 연구결과 [27]와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의 안전환경 실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는 대체적으로 가정의 안전환경을 위한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19,20,23]에서 밝힌 결과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결과로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을 안전한 환경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바람직한 자세로 볼 수 있다. 집의 구조적인 공간에서의 안전 실천은 ‘욕실’ 안전 환경에 가장 주력하였고, ‘주방’, ‘현관’, ‘베란다’, ‘거실’, ‘방’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료 [2]에 의하면, 거실과 방·침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상당수(32.5%, 32.4%)였고, 기타 가정내 공간, 주방, 욕실·화장실, 현관, 계단, 베란다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에서의 안전환경 실천에 주력하고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가정 안전환경 실천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욕실’과 ‘현관’의 안전환경 실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욕실’과 ‘현관’의 안전환경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가정의 안전실천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 [19, 27]의 결과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안전환경 실천의 총합점수와 ‘방’과 ‘주방’의 안전 실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영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가정의 전체적인 공간을 안전하게 구성하였고, 특히 ‘방’과 ‘주방’의 안전환경 실천을 더욱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영아의 부모들이 유아의 부모보다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영유아의 연령별 사고 발생 비율 및 발달적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태도라 여겨진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가정의 안전환경 실천에 차이가 없었다. 즉 어머니는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준에서 가정의 안전환경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가정 안전실천 수준은 차이가 없음을 밝힌 선행연구[22]와 일치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안전지식과 가정 안전환경 실천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간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안전실천과 안전지식 간에는 관계가 없음을 증명한 선행연구[22, 23]의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안전지식이 높아도 이를 실제 실천하는 능력과는 별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 실천은 잘하고 있으나, 안전한 환경 구성에 안전 지식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가정의 구조적인 공간에 따라 어머니의 안전환경 실천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가정의 안전환경 실태를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안전지식은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지식으로 국한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전반적인 영역의 안전지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 평가도구는 개인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사례수와 표집 방법의 제한성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례수와 표집 방법을 보완하고, 면접 및 관찰을 통한 가정의 안전환경 실천 정도를 분석하고, 안전지식과 안전실천간의 관계성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Daum Korean Dictionary.
http://dic.daum.net/word/wiew.do? (accessed March, 5, 2013)
- [2] Korea Consumer Agency.
<http://www.kca.go.kr/modules/board/view.jsp?>(accessed May, 2, 2013)
- [3] Korea Consumer Agency.
http://www.kca.go.kr/modules/board/view.jsp?(accessed March, 2, 2013)
- [4] G. Ellsaber, R. Berfenstam,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ild injuries and prevention programs: Recommendations for an improved prevention program in Germany", *Injury Prevention*, Vol.6, pp.41-45, 2000.
DOI: <http://dx.doi.org/10.1136/ip.6.1.41>
- [5] R. Thompson, A. Emslie, "Young children and the risk of accidental injury: Running and audit at nine months", *Community Practitioner*, Vol.73, No.10, pp.799-800, 2000.
- [6] S. Mackenze, I. B. Pless, "CHIRPP: Canada's Principal Injury Surveillance Program", *Injury Prevention*, Vol.5, pp.208-213, 1999.
DOI: <http://dx.doi.org/10.1136/ip.5.3.208>
- [7] H. G. Kim, "Mothers' knowledge and practice of home safety for young children",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Vol.25, No.1, pp.65-79, 2007.
- [8] L. S. Jayalakshmi, "Mothers' awareness about accidents among toddlers", *Nursing Journal of India*, Vol.95, No.12, pp.276-278, 2004.
- [9] L. R. Marotz, M. Z. Cross, J. M. Rush, "Health, safety, and nutrition", Albany, NY: Delmar, 1997.
- [10] D. C. Grossman, F. P. Rivara, "Injury control in childhood",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Vol.39, No.3, pp.471-485, 1992.
- [11] K. M. Russell, V. L. Champion, "Health beliefs and social influence in home safety practices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28, No.1, pp.59-64, 1996.
DOI: <http://dx.doi.org/10.1111/j.1547-5069.1996.tb01180.x>
- [12] C. C. Bourguet, R. E. McArtor, "Unintentional injuries: Risk factors in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Diseases of Children*, Vol.143, pp.556-559, 1989.
- [13] Korea Consumer Agency.
<http://www.kca.go.kr/modules/board/view.jsp?>(accessed March, 2, 2013)
- [14] H. S. Lee,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young children safety accidents at home and main fosterers' recogn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2007.
- [15] C. Onwuachi-Saunders, S. N. Forjuoh, P. West, C. Brooks, "Child death review: A gold mine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Injury Prevention*, Vol.5, pp.276-279, 1999.
DOI: <http://dx.doi.org/10.1136/ip.5.4.276>
- [16] B. A. Morrongiello, M. Corbett, "The parent supervision attributes profile questionnaire(PSAPQ): A measure of supervision that is relevant for understanding children's risk of unintentional injury", *Injury Prevention*, Vol.12, pp.19-23, 2006.
DOI: <http://dx.doi.org/10.1136/ip.2005.008862>
- [17] E. Towner, T. Dowswell, T. Jarvis, "A systemic review of what works in preventing childhood unintentional

injuries", Injury Prevention, Vol.7, No.3, pp.249-253, 2001.
DOI: <http://dx.doi.org/10.1136/ip.7.3.249>

[18] A. J. Tymchuk, C. M. Lang, S. E. Sowards, S. Liberman, S. Koo, "Developmental and validation of the illustrated version of the home inventory for dangers and safety precautions: Continuing to address learning needs of parents in injury preven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18, No.4, 241-252, 2003.
DOI: <http://dx.doi.org/10.1023/A:1024020431801>

[19] I. J. Kim, "A study on parents' knowledge and practice about children's safety and needs for parents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2006.

[20] H. S. Kim, "The parents conciousness and performance about the infants safety and home safety circumst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2006.

[21] H. S. Park, J. J. Kim, S. S. Ji,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safety knowledge and safety education performance and young children's safety knowledge and ability to predict risk elements", The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Vol.12, No.2, pp.221-241. 2011.

[22] K. H. Hong, "A Study on parent's safety knowledge and practice for family safety",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Vol.23, No.1, pp.105-120, 2005.
DOI: <http://dx.doi.org/10.1007/s10826-009-9293-7>

[23] S. H. Yoon, Y. K. Jung,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wareness and practice on safety of mothers with infant and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7, No.1, pp.115-134, 2012.

[24] S. H. Kang, "A study of developing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childhood household injur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3.

[25] H. G. Kim, M. S. Kim, "The effectiveness of a home safety program on mother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to safety injury at home",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5, No.2, pp.33-50, 2007.
DOI: <http://dx.doi.org/10.5124/jkma.2007.50.1.33>

[26] Y. S. Kim, J. J. Youn, J. J. Kim, "Early childhood safety management", Gyeonggi, Knowledge Community, 2011.

[27] J. S. Kwon, "The effects of education on child accident prevention at home and first aid trea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2011.

김 지 영(Ji-Young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석사)
- 2005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언어교육, 미디어교육

윤 진 주(Jin-Ju Youn)

[정회원]



- 2005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석사)
- 2008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언어교육, 안전교육

김 용 임(Yong-Yim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03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1989년 1월 ~ 현재 : 리라자연 유치원장

<관심분야>
과학교육, 부모교육